



편도염약

요약

편도염약은 목의 염증으로 인한 발열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진통제와 원인이 되는 균의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사용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함께 하며, 편도염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외국어 표기

medication for tonsillitis(영어)
扁桃炎藥(한자)

동의어: 편도염 치료제

유의어·관련어: 편도염, tonsillitis, 급성 편도염, acute tonsillitis

편도염

편도는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오는 통로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다. 편도염은 이러한 구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말로, 급성 편도염과 만성 편도염으로 나뉜다.

급성 편도염은 양쪽의 편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가장 흔한 원인균은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다. 대체로 젊은 성인에서 잘 생기고, 피곤할 때,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었을 때, 감기를 앓고 난 후에 주로 발생한다. 증상은 세균의 독성과 환자의 저항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이 발생한 이후, 목이 아프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며, 두통, 관절통이나 기운이 빠지는 등의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급성 편도염 환자에서는 편도가 붓고, 편도 주위의 입안이 붉게 충혈될 수 있으며, 편도의 염증이 심해지면 목의 림프절이 함께 커지며 턱 아래쪽이나 목 옆쪽에 작은 멍울이 만져질 수도 있다.

만성 편도염은 급성 편도염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급성 편도염의 증상은 없지만, 편도의 염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함을 경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성 편도염의 원인은 급성 편도염과 유사하지만, 그람양성균이 많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인 목의 통증이며,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입 냄새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1년에 3~4회 이상 편도염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편도를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약리작용

급성 편도염의 치료로는 염증을 제거하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세균의 감염에 의한 편도염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하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면 증상의 호전과는 상관없이 약 7~10일 정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4일간 치료하면 증상은 대부분 좋아지지만, 심해질 경우 편도 주위에 고름이 차거나, 심각한 전신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진통제

목이 아픈 경우, 편도나 입파선이 부으면서 열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열이 나면서 오한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열이 심할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염증인자가 전신에 퍼지면서 두통, 몸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 염증과 통증 완화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가 주로 사용된다. 통증과 발열을 유발하는 생리활성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은 사이클로옥시게나제(cyclooxygenase, COX)라는 효소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이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함으로써 프로스타글란딘을 감소시켜 약리작용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약제 모두 해열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항생제

세균의 감염에 의한 편도염이 의심될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항생제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약물로서 인체에 침입한 세균의 감염을 치료한다. 초기에는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생성해 낸 물질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반합성 물질이나 합성 물질도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세균이 사람의 세포와 다른 부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내는데 세균의 어느 부분을 저해하는가는 항생제마다 다르다.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여 세포 파괴를 촉진하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는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여 항균 작용을 나타낸다.

종류

진통제

편도염에 사용되는 진통제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중추성 진통제가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는 이부프로펜, 텍시부프로펜 등이 있고, 중추성 진통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으며, 두 약제의 약효는 비슷한 편이다. 주로 경구로 복용하는 약이나, 사탕 형태로 녹여 복용하는 트로키제 형태의 진통제도 있다.

외용제

외용제는 가글제와 스프레이 제제가 있다. 가글제는 탄툼[®]이나 아프니벤큐[®]처럼 소독 효과와 소염효과를 함께 가진 제제와 헥사메딘, 케어가글[®]처럼 소독 효과가 큰 제제가 있다. 스프레이 제제는 베타딘인후스프레이[®], 탄툼베르데네블라이저[®]처럼 소독 효과가 중점인 제제와 모겐쿨[®]이나 올렉스[®]처럼 허브 성분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제제가 있다. 가글제는 먹어서는 안 되며 스프레이 제품은 목 안에 뿌린 후 삼켜도 된다.

항생제

세균성 편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으로,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이 우선적으로 추천되며,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클린다마이신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이나 클래리스로마이신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작용

진통제

- 아세트아미노펜은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구역, 구토, 발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염, 위궤양, 위 천공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과 심혈관질환의 위험 증가, 혈소판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항생제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 설사 등이다. 과민반응은 항생제 복용 시 발진, 두드러기 또는 미열 등과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쇼크 등과 같은 비교적 심각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베타락탐계 항생제 간에는 한 종류의 약물에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에 다른 종류의 약물에도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설사는 항균제 사용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의 정상적인 균형이 깨짐으로써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에 해당한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진통제

- 술을 하루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위장 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복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 아세트아미노펜의 일일 최대 용량은 4000 mg이며, 이를 초과하여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정상인의 신장 기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울혈성 심부전, 만

성 신부전 환자 등에서 신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과민반응으로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항생제

- 감염 질환과 투여되는 항균제의 종류에 따라 투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항균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감염이 불완전하게 치료되어 내성 세균의 발현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

- 아목시실린을 포함한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페니실린 과민반응 병력이 있거나 알레르기 감수성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사전에 피부 반응 시험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여 후에도 구급처치가 준비된 상태에서 쇼크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히 관찰되어야 한다. 본인 또는 부모, 형제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인 환자에서는 페니실린계 항생제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상세 내용은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